


공동체 소식



**연중 제3주일**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저희를 자애로이 이끄시어,  
사랑하시는 성자의 이름으로  
저희가 옳은 일에 힘쓰게 하소서.

이번 주간의 축일

- 1/24(화)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주교 학자 기념일,
- 1/25(수) 성 바오로 사도의 회심 축일
- 1/26(목) 성 티모테오와 성 티토 주교 기념일

‘세계 이민의 날 미사’ 에 함께 하신 모든 분께 감사합니다.

- 안내: 음식 마련에 수고해주신 김경희 스킨라스티카 자매님께 특별히 감사합니다.

‘설’ 합동위령미사 안내(본날 1/28, 토)

- 일시: 2017. 1. 29(주일) 오전11:00 주일교중 미사
- 미사봉헌 신청: 전례부를 통하여 미리 봉헌하여주시기 바랍니다.

‘Stone Chapel’ 바닥 카펫 교체 공사.

- 일정: 1/23(월)-27(금)
- 평일미사: 나자렛 본당회관

‘Stone Chapel’ 보수공사 기금 전달

- 안내: 보수기금으로 9,600달러를 모금했습니다. 본당에서 400달러를 더하여 10,000달러를 ‘Holy Trinity Parish’ 본당신부님께 전달하겠습니다.
- 보수기금 모금에 기꺼운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협조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합니다.

교무금 책정에 대한 안내

- 안내: 교무금은 신앙인이라면 마땅히 부담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또한 의무라는 뜻은 하느님께서 우리 신앙인들을 위하여 은총을 베풀어주시실 때 조금의 오차도 없다는 뜻도 됩니다.

성경말씀에 “여러분이 되질하는 바로 그 되로 그대들도 받을 것입니다.”(마태7,2)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례 성가

시 작	예 목	성 체	파 견
37	217	178	437

주일미사 복사

	시중 복사	향 복사
금 주	김정원 안젤라 차민서 임마누엘	문호진 안토니오 이원준 요한
차 주	차민서 임마누엘 김정원 안젤라	문호진 안토니오 고평원 프란치스코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 주	김대연 요셉	김태중 예레미야 김시연 엘리사벳
차 주	최은미 아녜스	김화년 요안나 김명은 안젤라

애찬 봉사자

금 주	김시연, 신혜경, 김말자
차 주	백문주, 최은미, 윤지선

헌금 봉사자

금 주	정수한 베드로, 김대성 사도요한
차 주	백문주 엘리사벳, 고영방 스테파노

우리들의 정성

하느님께 드리는 헌금과 교무금에 정성을 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성체	헌금	교무금
1/15일	-	-	-
-			
건축헌금	지난주 합계: 0불, 총합계: 9,600불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요일: 7:30 PM  
목요일: 10: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 천주교 캔사스 한인성당

##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catholic.org  
나자렛 교육관: 8901 Haskins St. Lenexa, KS 66215  
주보 편집: 김대연 요셉 812.272.4770 moss0106@gmail.com

주임신부 홍진 베드로  
M: 913.912.2574  
honghin@daum.net

### 오늘의 전례

오늘은 연중 제3주일입니다. 하느님께서 사도들의 믿음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으니, 우리 모두 주님 말씀으로 빛을 받고 주님 사랑의 끈으로 하나가 됩시다. 우리 공동체가 어둠 속에서 빛을 갈망하는 모든 이에게 구원과 희망의 표지가 되게 해 주시기를 하느님께 청하며 미사에 참여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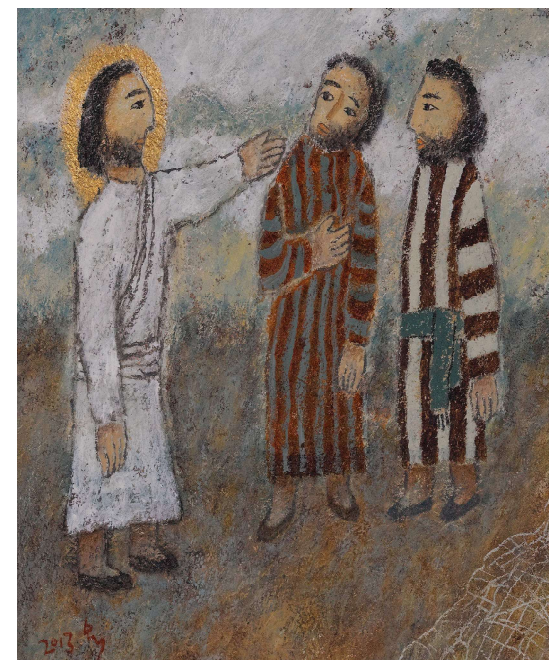
### 그림 묵상

####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부르심은 귀한 선물입니다. 주님께서는 세속의 바다에서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어 올릴 수 있도록 당신의 제자들을 오늘도 부르십니다.

- 그림 김옥순 수녀 | 성바오로딸수도회



제 1 독서 :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8,23c—9,3  
<어둠 속을 걷던 백성이 큰 빛을 봅니다.>



- ◎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시다.
-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 나 누구를 두려워하라? 주님은 내 생명의 요새. 나 누구를 무서워하라? ◎
- 주님께 청하는 오직 한 가지, 나 그것을 얻고자 하니, 내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며, 주님의 아름다움 바라보고, 그분의 성전 우러러보는 것이라네. ◎
- 저는 산 이들의 땅에서, 주님의 어지심을 보리라 믿나이다. 주님께 바라라. 힘내어 마음을 굳게 가져라. 주님께 바라라. ◎

제 2 독서 :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말씀입니다. 1,10-13.17  
<모두 합심하여 분열이 일어나지 않게 하십시오.>

-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예수님은 하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백성 가운데 병자들을 모두 고쳐 주셨네.  
◎ 알렐루야.

복 음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4,12-23<또는 4,12-17>1,29-34  
<예수님께서 카파르나움으로 가셨다.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된 것이다.>



# 쉐 마

## 역압의 땅에 빛으로 오신 주님



오늘 1독서에서 이사야 예언자는 천대받던 땅이었던 즈불론 땅과 납탈리 땅, 바다로 가는 길과 요르단 건너편, 이민족들의 지역이 영화롭게 되리라고 예언합니다(이사 8,23). 이 지역들은 예로부터 전쟁이 끊이지 않던 곳으로 갈릴래아 땅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땅이었지만 전쟁이 벌어질 때마다 이방 민족들에 의해 짓밟히곤 했던 땅이었고, 이방인들이 정착해서 살기도 했던 땅이기 때문에 유다 예루살렘에서 순수하게 신앙을 지키고 있다고 자신하던 유대인들은 갈릴래아 사람들을 어둠 속에 사는 이들, 암흑의 땅에 사는 이들, 땅의 백성들이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이사야는 이런 짓밟힌 땅에 큰 빛이 주어질 것이라고 예언합니다(이사 9,1-3). 사제와 자칭 의인들의 땅인 유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부정하다고 비난받던 이들, 역압받던 이들의 땅에 빛이 주어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이 짊어지던 온갖 멍에와 어깨에 멘 장대, 부역 감독관의 몽둥이를 부수실 것이기 때문에 큰 즐거움과 기쁨이 주어질 것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이집트를 치실 때와 마찬가지로 적들을 물리치시고 역압받던 이들을 쫓아내실 것입니다.

오늘 복음은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나자렛을 떠나 즈불론과 납탈리 지방 호숫가에 있는 카파르나움에 자리를 잡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신 뒤 “온 갈릴래아를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에서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 주십니다(마태 4,23). 예수님을 통해 갈릴래아 땅에 큰 빛이 떠오른 것입니다.

사실, 이사야가 예언한 지 700여 년이 훌쩍 지난 뒤에 등장하신 예수님 시대에도 즈불론 땅과 납탈리 땅은 여전히 천대받던 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런 갈릴래아 땅에 사는 이들을 모아 당신 제자로 삼으시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오늘도 여전히 예루살렘이 아

니라 갈릴래아 사람들을 모아 당신 제자로 삼으십니다. 어찌 보면 우리도 결국 어둠과 암흑, 죄와 죽음이 판을 치는 현대판 갈릴래아에서 주님 덕분에 모든 멍에와 무게를 털어내고 주님을 따라나선 이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함께 모여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화답송)이라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더욱 낮추어 주님만이 구원이심을 고백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종종 우리는 자신이 어디 출신인지를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곧, 우리는 “속된 기준으로 보아” 지혜롭지도 않았고, 유력하지도 않은 이들이었으며, “세상의 비천한 것, 천대받는 것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1코린 1,26-31), 종종 자신의 처지를 잊어버리고 스스로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양 자랑합니다. 더 나아가 남들보다 자신이 낫다고 여기며 파벌을 만들고 교회를 분열시키곤 합니다.

이런 모습은 바오로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나 봅니다. 그래서 오늘 2독서에서 사도 바오로는 코린토 인들에게 파벌을 조장하며 분열하여 교회를 망치지 말고 서로 겸손하며 일치를 이루라고 권고합니다. 제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라고 권고합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 번 우리 모두가 천대받던 갈릴래아 출신임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런 비천한 곳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스스로를 존귀한 지방 출신으로 여기는 이는 결코 예수님을 모실 수 없습니다. 스스로 잘난 맛에 다통과 싸움만 일으키며 교회를 분열시키는 이는 결코 하늘 나라를 이룰 수도, 그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부족함과 잘못을 고백하며 주님께 도움을 청합시다. 우리의 모든 죄를 치워 주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간청합시다. 그러면서 남을 나보다 낫다고 여기며 겸손히 살아갑시다. 서로 같은 생각과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됩시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1코린 1,17).

- 염철호 신부 | 부산가톨릭대학교 성서신학 교수



# 교리산책

## 성당에 들어갈 때 성수를 찍는 이유는?

중요한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몸을 깨끗이 단장합니다. 그것은 좋은 인상을 보여 주고 싶은 마음이며 동시에 상대방에 대한 예의이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거룩한 주님의 집에 들어가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구약시대에 신자들은 충분한 여유를 두고 미리 성전에 와서 기도와 묵상을 하며 경신례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성전에 들어가기에 앞서 입구에 마련된 아트리오(atrío)에서 손을 씻으며 몸과 마음을 정화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성당에 들어가기 전에 성수를 찍어서 기도하거나, 전례 때 성수를 뿌리는 것은 우리가 물로 받은 세례를 기억하고, 죄를 씻은 후에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느님께 속하지 않은 모든 것을 떨쳐 버리고 깨끗하게 된 후에 들어감을 뜻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요한 3,5) 성수(聖水)는 말 그대로 거룩한 물입니다. 또한 가톨릭 교회에서 종교적 목적에 사용하고자 사제가 축성한 ‘물’로써 성스러움을 방해하는 악의 세력 등을 쫓음으로써 더러운 것을 말끔히 씻는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따라서 신자들은 성당에 들어갈 때 성수를 손끝에 묻혀 성호를 그으면서 ‘주님, 이 성수로 저의 죄를 씻어 주시고 마귀를 몰아내시며 악의 유혹을 물리쳐 주소서. 아멘.’이라고 기도합니다. 이는 자신의 몸과 마음이 깨끗해지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물을 통해서 하느님께 속

하지 않는 모든 것, 탐욕과 근심, 미움, 분노 등을 모두 씻어낼 것을 다짐하기에 준성사가 됩니다.(준성사는 교회가 신자들에게 특별한 은총을 베풀기 위해 만든 물건이나 행동 또는 기도문을 말합니다.)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신을 벗었듯이, 성수로 성호를 그음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고 하느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왔음을 자각하며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탈출 3,6)

- 김지영 사무엘 신부 | 사회교정사목위원장



# 복음묵상

## 저울질



당연히 더 좋은 것을 선택해야죠  
하지만 선택에 앞서  
올바른 판단은 필수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마태 4,20)

- 임의준 신부